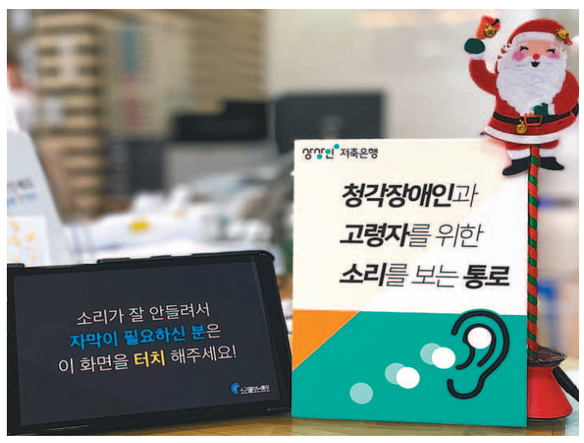
듀얼 금융 플랫폼부터 고령자 '소보로' 까지

〈소리를 보는 통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상상인 금융그룹이 온·오프라인 저축은행에서 금융 혁신을 펼치고 있다. '상상을 불어넣어 더 이로운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그룹 슬로건을 실천하는 것으로, '듀얼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및 '소리를 보는 통로' 등 독보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상인 금융그룹이 온·오프라인 저축은행에서 금융 혁신을 펼치고 있다. 듀얼 디지털 금융 플랫폼 '뱅뱅뱅'과 '크크크'를 소개하고 있는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왼쪽)와 송기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에 마련한 '소리를 보는 통로(소보로)' 서비스(오른쪽 사진). 사진제공 | 상상인그룹

지난달 '크크크' 금융 플랫폼 선봬
두 플랫폼 사용 시 고객 혜택 2배
청각장애 고객 위한 서비스 출시
창구 직원 음성을 문자로 변환 제공

●뱅뱅뱅+크크크, 듀얼 디지털 금융

먼저 온라인에서는 듀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눈에 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10월 1일 디지털 금융 플랫폼 '크크크'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기존 상상인저축은행 디지털 금융 플랫폼 '뱅뱅뱅'과 함께 두 개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선보인 '뱅뱅뱅'은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타깃으로 한 성공적인 플랫폼 운영으로 기존 17%였던 2030 고객 비중이 40%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크크'는 이러한 '뱅뱅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24시간 365일 입출금 자유 계좌 개설, 계좌관리, 대출관리, 송금수수료 0원, 즉시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뱅뱅뱅'과 함께 차별화된 가치와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생활에 즐거움을 더하겠다는 의미에서 '크크크'라 이름 붙였다. 또 '뱅뱅뱅'과 '크크크'에서 한 글자씩 따와 '뱅크'를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듀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 플랫폼을 함께 사용 시 고객 혜택이 배가된다. 두 개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은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품도 각각 가입 가능해 혜택을 두 배로 누릴 수 있다.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뱅뱅뱅 성과에 힘입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듀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송기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론칭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듀얼 디지털금융 플랫폼은 11일 열린 '제14회 앱어워드코리아' 생활금융플랫폼 부문에서 '2021 올해의 앱'에 선정됐다. 상상인 금융그룹 측은 "'쉽고 간편한 금융'을 모토로 내세운 듀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며 "생활금융플랫폼 올해의 앱에 선정된 것은 '뱅뱅뱅'과 '크크크'가 일상 속에 친숙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가 있어 더욱 뜻 깊다"고 했다.

●고령·청각장애 고객 위한 '소리를 보는 통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0월 26일 금융의 날을 맞아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는 고령 및 청각장애 고객을 위한 '소리를 보는 통로(소보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비교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영업점 방문 고객들이 창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 '소보로'를 기반으로 한다. 창구 직원의 안내 음성이 전용 태블릿PC를 통해 실시간 문자 변환된다. 소리를 문자로 변환시켜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본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향후 소보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타 지점 및 상상인 금융그룹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상인 금융그룹 측은 "소보로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간편하고 편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하나금융 '희망나눔 온택트 캠페인' 실시

임직원과 함께 김장나눔 등 진행
디지털 탄소저감 위한 챌린지도

하나금융이 11월 '희망나눔 온택트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희망의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김장나눔, 착한 소비 챌린지, 비대면 봉사활동(신생아 모자 뜨기), 하나 제로-백 챌린지(디지털 탄소 배출 저감 운동) 등 ESG 경영의 'S(사회)'에 중점을 뒀다.

사랑의 김장나눔은 봉사를 희망하는 임직원의 신청을 받아 김장 재료 일체를 보내주고,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를 부서 또는 지점 인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는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으로 진행한다. 하나금융스포츠단 선수들이 봉사에 참여해 나눔 활동의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챌린지는 내년 1월 1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연다. 사회혁신 분야를 지원하는 '하나 파워온 프로그램'과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를 통해 발굴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농어촌 어르신,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펀딩을 지원한다.



하나금융 '희망나눔 온택트 캠페인'.

임직원과 100명의 고객이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함께하는 신생아 모자 뜨기를 통해 따스한 생명의 온기를 전달한다. 신생아 모자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와 함께 국내 미혼모 가정과 해외 저개발국가 신생아에게 전달돼 신생아 저체온증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

디지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하나 제로-백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메일 지우기 등의 간단한 미션을 통해 온라인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임직원과 고객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ESG 캠페인으로 우리 사회 희망의 온도를 높이겠다"며 "향후 국내·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6일 (화) 음력: 10월 1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용의 날로서 천살에 해당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용의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검소한 생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반안일이다.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오늘은 화개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현재의 상태에서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기를 극복하면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오늘은 원진살과 귀문관살을 만났다.

신한은행-대교, 초등·중학생 대상 플랫폼 구축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과 강호준 대교 대표. 사진제공 |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대교와 초등·중학생 대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대교 플랫폼 내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양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를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신개념 금융교육 서비스인 키즈뱅크 구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키즈뱅크는 양사의 교육·금융·재미를 기반으로 한 융합 플랫폼이다. 대교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포인트 적금, 용돈 만들기, 올바른 투자 방법 등 경제 관념과 학습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KB국민, KB모바일브랜치 신규 가입 이벤트



KB국민은행이 30일까지 KB모바일브랜치를 통해 금융 상품 신규 가입 대상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KB모바일브랜치는 앱과 인증서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 발송, 네이버 검색, QR촬영을 통해 모바일 웹에서 상품가입이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이다.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퇴직연금, 가계대출, 카드 등 총 48종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시 자동 응모되며, 응모 고객 중 3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百 플렉스 카드'에 골프 브랜드 적립 혜택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 플렉스 카드'에 골프 브랜드 적립 혜택(사진)을 추가했다. 이 카드는 롯데백화점·아울렛 내 250여 개 해외명품·컨템포러리 매장에서 결제 금액의 7%를 엘포인트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골프 인기에 힘입어 7% 적립 대상에 롯데백화점·아울렛 내 70여 개 골프웨어·용품 브랜드를 추가했다. 또 21일까지 진행하는 '11월 플렉스 위크' 대상도 골프 브랜드로 정했다. 플렉스 위크 기간 롯데백화점·아울렛 내 골프웨어·용품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 시 7% 엘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준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16일(화)

서울 0/0	4 / 13	인천 0/0	6 / 12
춘천 0/0	2 / 14	강릉 20/0	8 / 17
대전 10/0	4 / 15	전주 10/0	5 / 16
광주 0/0	6 / 17	대구 0/0	5 / 17
부산 0/0	9 / 18	창원 0/0	7 / 17
제주 20/20	12 / 18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0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